



# Global Goings-on

## 영국

### ■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들을 끌어 안기 시작하다

#### 평생 친구

대형 제약회사들이 한 때 적이었던 제네릭 의약품(특히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나 화학공식에 따라 누구나 제조할 수 있게 된 약품) 제조사들을 끌어 안는 법을 배우고 있다

최근 한 저녁 식사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다. “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는데 파란 약이 빨간 약에 비해 가격은 절반이고 그 효능은 똑같다면 절반 가격의 그 파란 약을 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?” 바락 오바마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도록 몰고 있는 두 가지 거센 세계적 경향 중 한 가지를 언급했던 것이다.

약값을 내리는데 골몰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값 싼 제네릭 의약품들의 제조를 권장할 뿐 아니라 값 비싼 특허의약품들의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.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EU의 당국자들은 각각 반경쟁적 관행을 무너뜨리려는 대책을 발표했다. 여기에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제조를 늦추는데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“제조 연기 지불”(pay-for-delay)이라는 관행도 포함된다. 일본으로부터 독일에 이르기까지, 각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약품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다.

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압박과 함께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로부터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. 엄청난 수의 약품 특허가 향후 몇 년 안에 만료되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 회사들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가격의 폭락을 의미한다. 컨설팅 회사인 Evaluate Pharma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판매될 3천8백3십억 달러 상당의 특허 의약품들의 특허가 향후 오 년 내에 만료될 것이다. 2010년 한 해에만 특허약품으로부터 얻

는 수입의 거의 15%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. 비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으로부터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같은 경우, 특허가 만료되는 그 해 그 의약품의 가격은 85% 이상 떨어진다.

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 제약회사들의 전략은 첫째,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을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으로 계속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충성심을 이용한 가격 프리미엄을 통해 일반 제네릭 의약품들보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. 둘째, 아예 제네릭 제조사들을 사 버림으로써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제조를 수월하게 하고 신형 시장으로의 확장을 가속화 한다. 또 다른 컨설팅 회사인 IMS Health 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가장 큰 의약품 신형 시장 일급 군데의 판매 성장이 전체 시장 판매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이미 대부분의 서양 제약 회사들이 이 신형 시장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.

정부는 계속해서 약값을 낮추려 할 것이다. 하지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Charles-Andre Brouwers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이를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. 여전히 세계의 많은 소비자 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약값을 지불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심이 높거나 혹은 다른 제네릭 약으로 옮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. “의약품 산업의 비밀은 빨간 약을 먹는 환자들은 파란 약으로 바뀌 먹 는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.”

The Economist (Aug 6th 2009/ New York)  
 <원문 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>

[businessfinance/displaystory.cfm?story\\_id=14177559](http://businessfinance/displaystory.cfm?story_id=14177559)

## 일본

### 일본 나가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(H1N1)로 인한 다섯 번째 사망자 발생

나가노(교도)/ 나가노 정부는 지난 목요일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호흡기와 관련된 문제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섯에 이르게 되었다.

심장 비대, 만성 심장마비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이 남성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최초로 확진 된 이래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일본 보건노동복지성(the Health, Labor and Welfare Ministry)은 말했다.

이 남성은 8월 20일 최초로 기침을 하기 시작 해 그 주 일요일 체온이 37.9도로 상승한 뒤 지역 병원을 찾았다. 당시 그는 돼지 인플루엔자 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.

그러나 이 남성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화요일 만성심장마비와 폐렴으로 입원했다.

다음날 그는 신종 인플루엔자A(H1N1)에 감염 된 것으로 확진 되었고 사망 시 호흡기를 단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.

The Japan Times (Aug28, 2009)  
 <원문링크: <http://search.japantimes.co.jp/cgi-bin/nn20090828b3.html>>

## 중국

###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, 갈수록 증가

최근의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료 비용 중에서 비만환자들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.

매릴랜드 락스빌의 보건연구소(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) 선임 조사 통계학자인 Marie N. Stagnitti씨의 분석에 따르면 비만한 성인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2001년 천 6 백 7십억 달러에서 2006년 3천 3십억 달러로 약 82%의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.

정상 체중의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2천 8십 억 달러에서 2천6백억 달러로 25% 증가한 반면,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2천2십억 달러에서 2천 7백 5십억 달러로 36% 증가했다.

비만한 사람들은 2001년 총 의료비 지출 중 28%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35%로 증가했고 반면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5%에서 30%로 감소했다.

이 기간 미국 내 비만한 성인들의 수는 4천 8 백만에서 5천 9백만으로 증가한 반면 정상 체중의 성인 수는 7천9백6십만에서 7천8백3십만으로 다소 감소했다.

본 결과는 미국 가구들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각 가구의 의료비를 조사한 의료비패널 조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모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

조사 기간 중 미국 인구 내 과체중인 사람들과 비만한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비 증가를 일부 설명해 준다. 2001년 미국 성인 중 23.6%가 비만, 39%가 정상 체중이었으나 2006년 비만은 27.2%로 증가, 정상체중은 36.1%로 감소했다.

Stagnitti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심장 병이나 당뇨병과 같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비만한 사람들이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. 2001년에는 57.1%가 비만이었으며 2006년에는 59.7%가 비만이였다.

연합 Aug 20, 2009  
 <원문링크: [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09-08/20/content\\_8595215.htm](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09-08/20/content_8595215.htm)>